

법사학 관련 신간 안내

- ◎ 한용근, 『高麗律』, 서경문화사, 1999년 9월, 318면
저자가 그 동안 발표해온 고려률에 관한 논문을 집성한 것으로, 고려률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기존 견해를 통박하고 신라률을 계승한 고려률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 ◎ 박병호, 『한국의 법』,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년 11월, 205면
<교양국사총서 10>으로 1974년에 발간된 것을 재간행한 것이다. 적은 분량이지만, 한국법제사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역작이며, 현재 한국법제사에 대한 개설서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좋은 안내서이다.
- ◎朴健柱, 『中國古代의 法律과 判例文』 백산자료원, 1999년 7월, 418면
중국사 전공자인 저자가 일반인과 전공자를 위해 중국고대의 법률에 대한 해석과 함께 판결문을 소개하고 아울러 그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켰다. 중국법제사에 대해 우리의 시각으로 된 글이 없는 실정에 원자료에 천착하여 중국고대의 법을 음미할 수 이끈 계기가 될 것이다.
- ◎崔秉祚, 『로마法·民法論考』, 박영사, 1999년 10월, 519면
1995년 『로마법연구(I)』 발간 이후 발표한 로마법과 민법에 대한 논문을 수록한 것이다. 특히 로마법을 토대로 우리 민법에 대한 비교법제사적 해석을 한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 ◎崔秉祚, 『로마법강의』, 박영사, 1999년 9월, 604면
로마법 강의를 위해 저술한 것으로, 로마법 개관, 로마사 개관, 로마법학사, 로마사 법, 로마분쟁해결법, 로마형사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로마법에 대한 학습과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도미야 이따루(富谷 至) 지음, 임병덕·임대회 옮김, 『유골의 증언 : 古代中國의 刑罰』, 서경문화사, 1999년 9월, 278면
일본의 저명한 고대중국법연구자인 저서를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연구자만이 아니라 일반독자를 염두에 둔 것이다. 진한대의 형벌을 중심으로 하였지만, 서양과 현재의 중국과 일본까지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 ◎ 鄭肯植·任相燮 편저, 『十六世紀 詞訟法書 集成』, 한국법제연구원, 1999년 12월, 572면

일본에 소개하는 16세기에 발간된 민사소송법서인 《聽訟提綱》, 《詞訟類抄》, 《大典詞訟類聚》, 《決訟指南》, 《詞訟錄》의 원본을 해제와 함께 수록하였다. 이들 법서는 현재 서명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는 않은 것인데, 원문을 소개하여 학계의 연구자료로 제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법제사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 이은봉 편저, 『신판 : 神明裁判』, 신서원, 2000년 2월, 288면

중국의 역사에서 나타나는神明재판에 대한 논문과 일본과 중국학자들의 논문을 편집한 것으로, <아시아총서 8>로 간행되었다. 이를 통해 서양과의 비교연구와 한국에서도神明재판에 대한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 ◎ 스키하라 야스오(杉原泰雄一郎) 지음, 이경주 옮김, 『헌법의 역사』, 이론과실천, 1999년 1월, 248면

일본헌법학계의 권위자가 일반대중을 위한 입문서로 헌법의 역사와 그 의의를 서술한 것을 번역한 것이다. 이를 통해 헌법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규범으로 인식되고 나아가 진정한 법치주의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 ◎ 서울대학교 奎章閣 소장 法制史 관련 자료 발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1998년을 이어서 奎章閣資料叢書 법전편을 발간하였다. 『大典會通』(2책; 해제 鄭肯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六典條例』(2책; 해제 延甲洙[규장각 특별연구원])를 해제와 함께 발간하였다. 그리고 갑오개혁기에 설치된 法部에서 1895년 4월부터 1905년 12월까지 법부에서 기안한 공문서를 정리한 『法部起案9~15』(전 7책; 解題 都冕會[규장각 특별연구원]) 2차분을 奎章閣資料叢書 錦湖시리즈 法部編으로 발간하였다.

그리고 刑獄詞訟類 자료정리 사업으로 1895년부터 1907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內藏院에 제출한 소지류를 정리한 『內藏院各道各郡訴狀要約』을 1998년에 2책을 발간하고, 이어서 3책으로 발간하였으며, 1894년부터 1901년 사이에 度支部와 각 관청들 사이에 오고간 공문서를 정리한 『公文編案 要約』(2책;)을 발간하였다. 공간된 자료집은 한국법사, 특히 근대분야의 중요한 사료로, 근대법사연구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